미래 지향적인 교회

베드로후서 1:1-11

데니스레인 목사/ 2002. 3. 3.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그의 생애 마지막 사역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미 디모데후서에서 교회의 위기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교회의 교리를 다르게 말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다른 의미를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과 같이 믿음이 강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굉장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믿음도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도 자신들의 것처럼 굉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귀한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

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명' '경건'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새 생명을 갖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분을 앎으로써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에 죄의 삯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기 위해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살기 위한 경건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내가 온전한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크고 귀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11 사태 때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땅은 남북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또 교인들끼리 질투합니다. 그러면 일이 잘못됩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나쁜 정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정욕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된 것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된 것, 더러운 것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위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재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

을 다 씻어줄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경건을 주셨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훌륭하지 않았더라도 믿음 위에 덕을 쌓아보십시오. 그 덕에 하나님의 지식을 쌓으십시오. 지식은 말씀을 익히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지식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덕을 쌓은 다음, 지식에 절제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품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멈추도록 노력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랑으로 전해보십시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은퇴하여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일할 때 행복합니다. 정원의 흙은 진흙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단단해져 일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땅을 파서 자갈을 묻은 뒤 토양이 부서져서 땅이 숨을 쉬고 수분이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비료를 뿌렸습니다. 토양이 비옥해졌을 때 꽃을 심으니 아주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토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노력을 하면 마음의 토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효과적이고 열매를 맺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9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소경이 되고, 망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꼭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배운 것을 자주 상기시켜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진리를 알았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강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강조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고 합니다.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16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빛나는 것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귀로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등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쓰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온누리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 목사님이 떠나고, 초창기 멤버가 떠나고, 그때에도 온누리교회가 샛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의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배롭고 귀중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생애와
그의 모든 증거를 감사합니다.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반응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